교육과 학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누구든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강의하는 시민교육 활동가들에게 학습은 필수다. 하지만 기존의 학습모임은 대체로 소비적 성격, 또는 지식과 정보 나눔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정보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학습모임도 해소되곤 했다. 이러한 수동적 학습을 지양하고 구성원 모두가 학습 진행과 생산성,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자 모인 학습공동체에서는 단지 지식 터득이 아니라 '생산'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학습공동체의 성과는 구성원들 모두의 것이며 나아가 시민사회 전체에 환원될 것이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팀과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교육과 학습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재를 시작한다.

시장과 인문학

글 · 곽형모 emergence@hanmail.net

요즘 여기저기서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금융위기,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 환경 위기, 이공계 위기, 인문학의 위기…… 이렇게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를 느끼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하지만 인문학의 위기는 경우가 좀 다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의 위기는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왠지 그냥 방관하기에는 꺼림칙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 절실하진 않다. 가령,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문사철(文史哲)을 모르면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못살 정도는 아니다. 몸에 치명상을 입지 않은 이상 손가락을 조금 베었다고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과 같다.

인문학의 위기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수들이다. 그들은 "무차별적 시장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으로 인문학은 그 존립 근거와 토대마저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문학의 위기라고 여겨질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학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필자.

에서 인문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기가 없고 퇴출당하기 일쑤다. 아울러 인문학은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게다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권에서 인문학은 더욱 소외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론이 최근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문학이 일부 엘리트 층을 넘어서 노숙인, 감옥으로 진입하고 있는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강단 밖 인문학자들은 일침을 가한다. 그들은 인문학 위기론을 고답적인 인문학자들의 엄살 정도로 여긴다.

'위기론'의 실체는 교수들의 위기이고 아카데미 권력 구조의 위기이지 인문학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인문학 위기론은 그저 교수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더 타내려는 돈타령으로 보일 뿐이다. 그들은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강단에 갇혀있는 인문학이 위기에 직면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말한다.

인문학의 위기?

진짜 인문학의 위기가 맞긴 맞나? 여기에 이르면 전자와 후자는 보려고 하는 문제도 관점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가장 쉽게 도달하는 귀결점은 '인문학은 시장친화적'이다. 이제 세상은 지식과 정보시대를 넘어 창의력, 예술적 감수성, 디자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인문학이야말로 그 콘텐츠를 공급할 인프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CEO들은 짧게는 직원들이나 협상 파트너를 만나 풍부한 화젯거리를 만들기 위해 길게는 비전 창출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싶어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은 대학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즉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교육 시켜 달라고 주문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의 위기는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왠지 그냥 방관하기에는 꺼림칙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 절실하진 않다. 가령,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문사철(文史哲)을 모르면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못살 정도는 아니다. 몸에 치명상을 입지 않은 이상 손가락을 조금 베었다고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과 같다.
지난 5월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 홍세화 씨

"(그런데도) 대학이 불량품만 생산하여 기업에 보내니 그것을 고쳐 쓰느라 힘들다"고 기업의 불평이 많다. 전경련은 기업 입사시험에 한자시험을 필수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과연 시장친화적 인문학이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후자라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강단 밖 인문학이 삶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넘어서야 한다. 앞서 말한 문사철을 모르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될 수 있을까. 노숙인, 수용자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문사철을 교육하는 것이 인문학의 본질에 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문학은 결코 고상하지 않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에게도 삶의 의미는 있다. 그러한 삶의 의미와 소통하고 스스로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인문학의 본질 아닐까.

그래서 인문학의 본질은 문사철 지식을 넘어선 성찰에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인문학은 잠수함의 산소 부족을 알려주는 토끼와 같다. 즉, 인문학은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시장친화적 인문학이든 강단 밖 문사철 중심의 인문학이든 성찰 없이 삶의 지표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이 아직 잠수함의 토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인문학 지식은 있어도 인문학적 성찰은 부족하다는 뜻일 게다.

시장에서 인문학이 격돌하는 지점도 바로 성찰이다. 기업은 인문학을 또다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구화 하고 싶을 것이다.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기업교육이다. 기업은 성과를 지향한다. 성과를 지향하지 않으면 이미 기업이 아니다. 사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성과 목표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걸어야 하고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성찰이나 비판적 사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적응에 비하자면 하위개념이다. 당연히 기업교육은 투자한 만큼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지금은 한물 간 자극-반응식의 행동심리학이 기업교육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찰이 결여된 성과주의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신자유주의의 원조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한다.

"경쟁은 생산자들에게 합리성을 강요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원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 한다"

인문학의 성찰과 연대의 힘

분명히 경쟁은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시장근본주의자들은 경쟁을 최고 미덕으로 여긴다. 그러나 경쟁이 끝을 모르는 탐욕까지 합리화 시켜주진 못한다. 지난해 미국 발 금융위기의 핵심은 뒷감당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파생상품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성 아니었던가.

그런 의미에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준다. 주지하다시피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이기 전에 도덕철학자였다. 그의 「도덕감정론」 없는 「국부론」을 상상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도덕감정론」 없는 오늘날의 유럽자본주의도 생각하기 어렵다. 「도덕감정론」은 유럽자본주의의 인문학적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근검절약의 미덕은 탐욕과 낭비 가운데에 놓여있다. 전자는 자기 이익의 대상에 주어져야 할 적절한 관심이 지나친 것이고, 후자는 그것이 결여된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사람의 본성에는 분명 몇 가지 원칙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운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필요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거나 생생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인 연민, 또는 동정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이 비인간적이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비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인간적 시장을 개개인의 도덕적 힘만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소통과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시장의 비인간성을 혁명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지만 인간과 인간의 비인간적 관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인문학적 기초가 없는 시장도 고통스럽지만 인간과 인간

사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성과 목표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걸어야 하고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성찰이나 비판적 사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적응에 비하자면 하위개념이다.

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은 혁명도 위험하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경쟁은 능사가 아니다. 성과제일주의를 추구하면 조직이 잘될 때 더 잘되게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조직이 어려워질 때 자기 일처럼 끌어안고 희생할 사람은 줄어든다. 사람들이 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남보다 잘하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기 때문이다.

남을 밟고 넘어가는 것만이 경쟁은 아니다. 자신과의 경쟁이 오히려 생산적일 수 있다. 그렇게 자기와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은 물론 세계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인문학적 성찰과 연대의 힘이다.

기업의 자원봉사활동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창출이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이유가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기업의 모든 활동은 지속가능한 이윤창출과 성장을 위한 활동이다. 기업은 자신의 사회공헌이 이러한 이윤창출을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기업은 사회공헌에 나서지 않는다. 하다못해 지역사회에서의 기업 이미지 제고, 사원들의 애사심 향상 등과 같은 기대성과가 없으면 기업으로서는 사회공헌에 나설 이유가 없다.

근래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이 필수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이제 시장 실패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 과거 공급중심의 경제에서는 기업은 세금만 잘 내면 국가가 나서서 시장 실패를 책임져 주었다. 그러나 수요중심의 경제로 넘어오면서 기업은 정부와 개인에 대한 지배력만큼 그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것은 마치 기업이 자원을 쓰는 만큼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떠맡기 싫겠지만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성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벗어난 자원봉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학, 역사, 철학(문사철)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사진은 지난 5월 사업회에서 진행한 '청소년 역사캠프'

시장경제 그리고 인문학

하이에크도 경쟁의 원칙을 저버린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장주의자들 관점에서 보자면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공짜다. 공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공짜로 얻었을 경우 본인은 그것이 공짜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자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 된다. 이러한 공짜가 반복이 되면 시장에서의 협동과 공존이 깨지게 되어 사회 전체적인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직업과 소득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시행할수록 조정 기능은 마비돼 고용과 생산이 급변하고,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은 의지가 개입된 행동이 아니며, 과정도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시장경제의 분배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균등은 불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공짜 관점' 으로는 자원봉사의 본질에 다가가기 어려워 보인다. 자원봉사가 왜 공짜인가. 자원봉사의 본질은 상호작용이다.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시장의 원리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매우 생산적이다. 그것은 인문학적 성찰이 아니고는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성숙한 세계로 변화시켜 나간다. 그렇게 될 경우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다. 이것이 거버넌스의 목적과 무엇이 다를까.

지난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하이에크 신봉자들은 "하이에크는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했을 뿐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했다(좌승희). 하이에크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은 불완전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만든 질서는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도 법도 손을 놓고 자생적 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다. 하이에크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입각한 자생적 질서의 완전성을 주장하다가 거꾸로 시장의 불완전성에 뒤통수를 맞았다.

이처럼 시장주의는 시민의 성찰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민적 성찰을 허용하지 않는 시장근본적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얼굴을 때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직 정답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능으로서의 인문학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문학은 시장친화적이지도 반시장적이지도 않다. 그보다 인문학은 시장을 성찰하게 만든다. 여기서 시장은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일 수 있다. 인문학은 시장,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현실 너머를 보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교육은 '잠수함의 토끼' 아닐까.

글 **곽형모** | NGO 교육포럼공동대표
자료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